입찰 제도 기사가 매우 흥미로워

지난해 「건설저널」 12월호에 실렸던 입찰 제도 기사가 매우 흥미로웠다.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입찰 제도는 최저가낙찰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가낙찰제에 반드시 수반되는 저가 투찰과 부실 시공에 있다. 이에 따라 도입과 반복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현재도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찰 제도 기사는 필자에게 현행 입찰 제도의 많은 문제점과 그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주어 유익하였다. 앞으로도 입찰 제도와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주었으면 한다.

정병용 · 비케이건설(주)

2000년대를 준비하는 건설인의 자세

지난 세기 말 겪었던 IMF 사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맞이한 2002년. 우리 건설인은 2002년을 어떤 자세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

먼저 마음가짐부터 다그쳐야 할 때이다. 이 일은 반드시 우리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미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일하니까 확실히 낫다. ’ 이러기 위해서는 건설인 스스로 먼저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먹구구식의 일의 형태나 ‘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 이런 식의 일의 형태는 안 된다. 지금의 공사는 건설 그 자체만이 아닌 자연의 종속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환경이라는 면을 부각시켜야 하고 환경이라는 이슈로 많은 세미나나 교육 등으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건설인이, 우리 건설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건설시장의 흐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홍형균 ·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과장

건설업 회생만이 지방 경제의 살길

「건설저널」 <커버스토리>를 꼭 챙겨 읽는 독자다. 매월 다양한 주제로 편집되는 커버스토리 특히 지난 1월호 커버스토리 <2002년 건설업 화두>에서 다뤘던 ‘ 풀뿌리 경제의 바로미터-지방 건설업을 살려라 ’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건설저널」에 아쉬운 점은 건설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관련된 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설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공법과 그 적용 현장을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또 국내 건설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기업의 동향을 다양하게 게재해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1월호 <지구촌건설>에 벡텔사의 전자 구매 · 조달 시스템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 e-비즈니스에 관한 내용이어서 매우 유익했다. 외국 기업의 최신 동향은 우리 건설업체들에게 많은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최명석 ·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 양양공항 건설 현장

건설업에는 주택 분야만 있는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요즘 TV나 일간 신문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건설 관련 보도나 기사는 온통 아파트 등 주택 부문 일색이다. 저금리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주택 가격 상승과 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정부의 세무조사 내용이 건설업 최대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택 관련 이외의 건설 기사는 단순한 기업 홍보 내용 외에는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반면, 부실 시공이나 건설 비리는 침소봉대(針小棒大)되기 일쑤이다. 그래서 건설업은 마치 부실과 비리가 들끓는 주택건설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언론의 책임만으로 전가하고 말 것인가. 이제는 건설인들이 달라져야 한다. 제 역할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과 함께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에 건설산업의 리더 매체를 추구하는 「건설저널」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윤대권 · 구로구 개봉동

청년 건설 인력의 체계적 육성책 시의 적절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있다. 졸업을 앞두고 현 건설 인력 시장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궁금하다. 「건설저널」 12월호 특집에서 건설 인력 시장을 점검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청년층의 자발적 진입과 체계적 육성책을 마련해야 ’ 한다는 기사에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건설저널」이 이상, 김수근과 같은 한국의 건축가를 다루어주었으면 한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건축물들을 다양하고 자세히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도시 곳곳에도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현대 건축물들은 많다.

도원선 ·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 독자편지 ’ 코너는 그야말로 독자 여러분의 열린 광장입니다. 평소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하고 싶었던 말, 정책 · 제도의 평가, 제안을 비롯하여 단상, 애환, 비전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cerik.re.kr)의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보내 주셔도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